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통일의 의미



TOP



통일돋보기
우리결 착한(着韓) 이웃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일은
통일 언어의 시작



통일Talk
북한인권개선과 통일 이루는 건 나,
그리고 우리

포커스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통일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결과 갈등의 분단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

더보기 >



행복한 동행
새학기 두근두근 어깨동무멘토링



골든벨, 뒷 이야기
통일의 꿈이 자라는
공주한일고등학교



Today남북
북한의 이사와 주거생활



최홍우들 남한 적응기
함경도민과 경상도민은 이웃사촌?



통일공공외교대사
3기 통일공공외교대사의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되다!



Nuac News
분단 70주년 새해 첫 날 현충원
참배, 통일 다짐



느낌 있는 여행
그래도 좋다, 그래서 좋다
'충남 아산'



통일 웹툰
2030년 세계 반려견 축제 우승,
통일한국 토종견 풍산개!



통일 레시피
설날 평양사람들의 만찬,
만둣국



이벤트 당선작
통일, 북한이탈주민을 볼 때면
더욱 더 간절해져요.



이벤트
1. '행복한통일'로 가는길!
2. 통일 사다리타기 퀴즈



이벤트 당첨자발표 >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통일의 의미

홍규덕 교수(숙명여대 교무처장)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주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통일대박이란 화두를 던지며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던 점을 고려한다면 2015년에는 통일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대통령의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자 간절한 희망을 담은 대목이다.

그러나 새해 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남북접촉을 위한 적극적 시도가 자칫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지 않거나,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과 호흡이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에둘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측 불허의 북한지도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에는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노력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변국 스스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

민주평통 역시 국제적인 조직망을 통해 한국주도의 통일이 가져다 줄 안정과 이익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존재가 갑작스런 체제변화를 야기하고 기존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유구한 국제정치 발전사에 항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노력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변국 스스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해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국외 전문가들에게 우리정부의 통일의를 전파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평통 역시 국제적인 조직망을 통해 한국주도의 통일이 가져다 줄 안정과 이익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존재가 갑작스런 체제변화를 야기하고 기존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유구한 국제정치 발전사에 항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일 뿐이다.

세계 패권을 주도해 온 선진 열강들의 지도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정치학자들과 국제체제의 변화를 분석하는 미래학자들은 통일을 통한 우리의 군사력과 정보력의 확대를 두 가지 시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기존 국제체제의 안정을 깰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는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G2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지각변동이 자국이 주도할 세계질서에 도움이 될 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는 비단 주변국들만의 걱정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통일인식조사를 살펴보면, 통일이 경제적인 부담이라 판단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일은 비록 부담일 수 있지만 새로운 활력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일임을 교육하고 그들이 피부로 체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며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학생들 14명을 인솔해 하노이 대학에서 베트남 학생들과 1주일간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지, 남북관계가 왜 개선되기 어려운지, 북한이 현 체제대로 지속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베트남이 북한에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다행히 이런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핵 개발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뤘고, 미국이나 프랑스와도 30년간의 처절한 전쟁과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미래지향적인 선린관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양국 학생들 모두가 북한의 자세변화가 필요함을 이해하게 됐다.

우리의 통일이 한국인들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연계가 된다는 점을 베트남학생들이 인식했고 우리 학생들이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통일문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점이 이번 공동수업의 작은 성과이자 귀한 발견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봄 학기 "생활 속의 북한알기"라는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1090 통일과 평화 소속 전문가들의 도움 하에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딱딱한 이론이나 정책얘기가 아니라 평양사람 이야기, 북한의 농사꾼 이야기, 북한의 의료현실과 북한 젊은이들의 체형, 북한여성들의 의상이나 패션, 자연 파괴의 수준이나 문화재 보전 상태 등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고,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북한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통일과정에서 비록 학생들이지만 어떤 기여가 가능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고 젊은이들다운 상상력을 키워 주도록 우리 사회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기반의 구축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하에 내 주변의 작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우리 미래를 담당할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기반의 구축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하에 내 주변의 작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우리 미래를 담당할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현장이 달라져야 하며 이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대통령 신년사의 화두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한다. 북한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건 우리 스스로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때 분단 70주년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는다.

〈사진제공 :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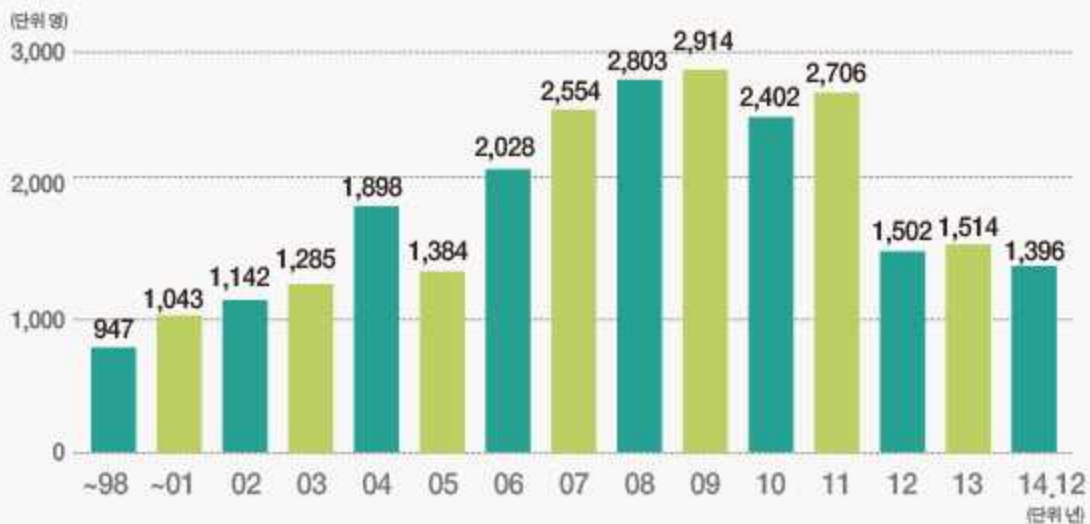


2015년 e-행복한통일에서는 통일과 북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면 잘해주고 싶지만, 평소 만나볼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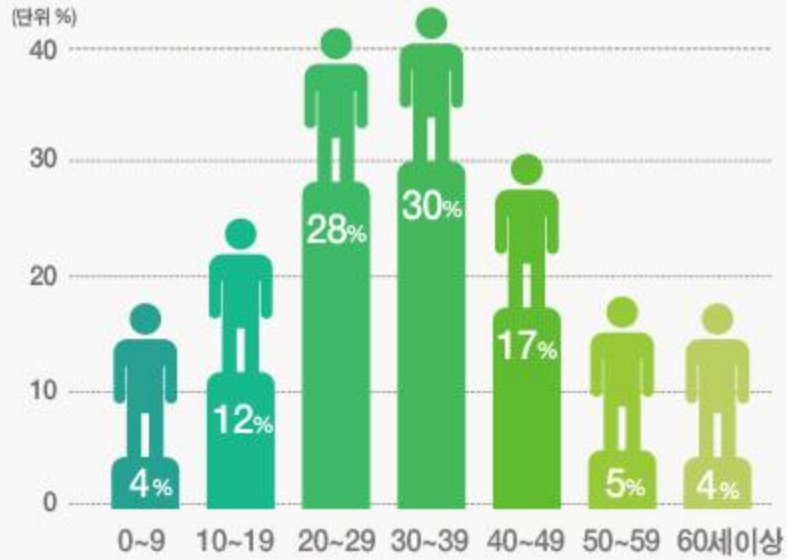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014년 12월말 입국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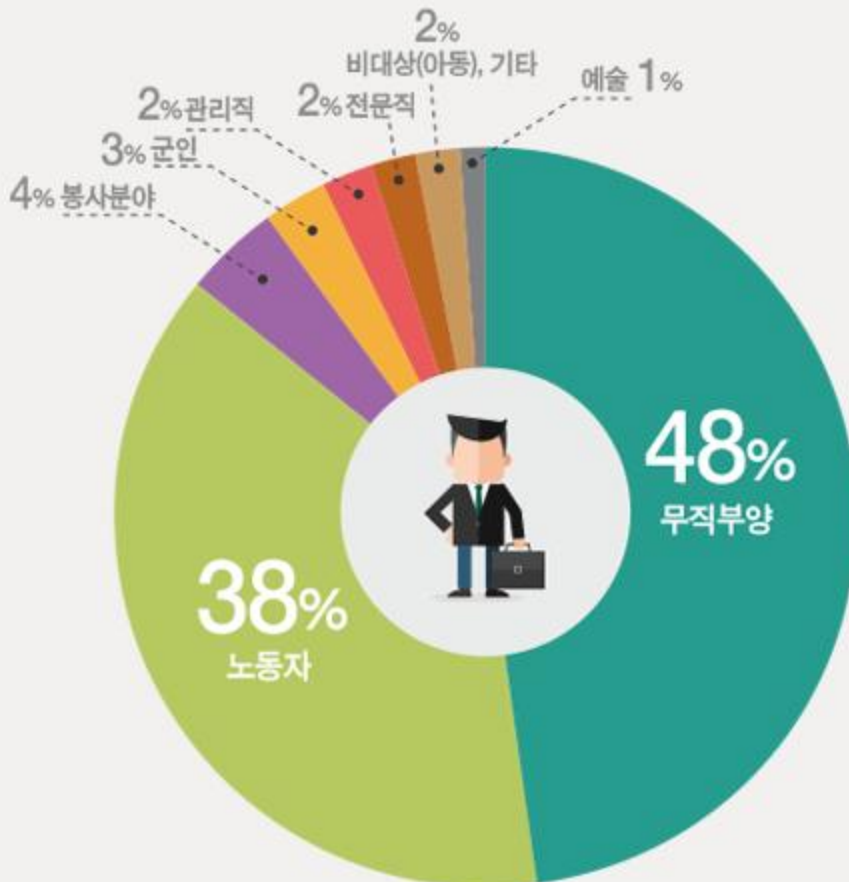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연령별현황

(2014 (2014년 8월말 입국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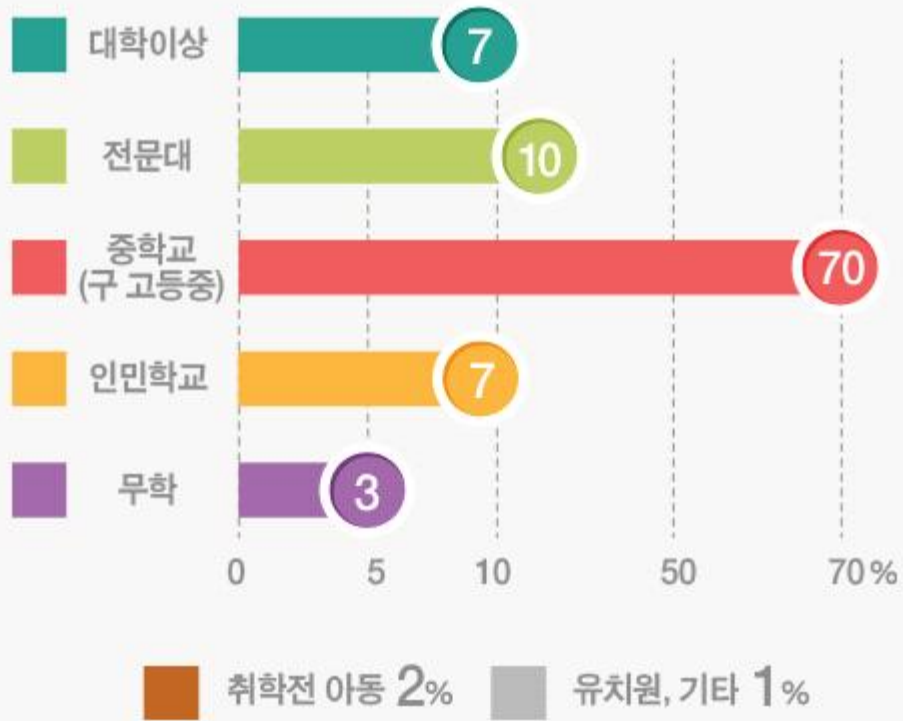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현황

(2014년 8월말 입국자 기준)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별현황

(2014년 8월말 입국자 기준)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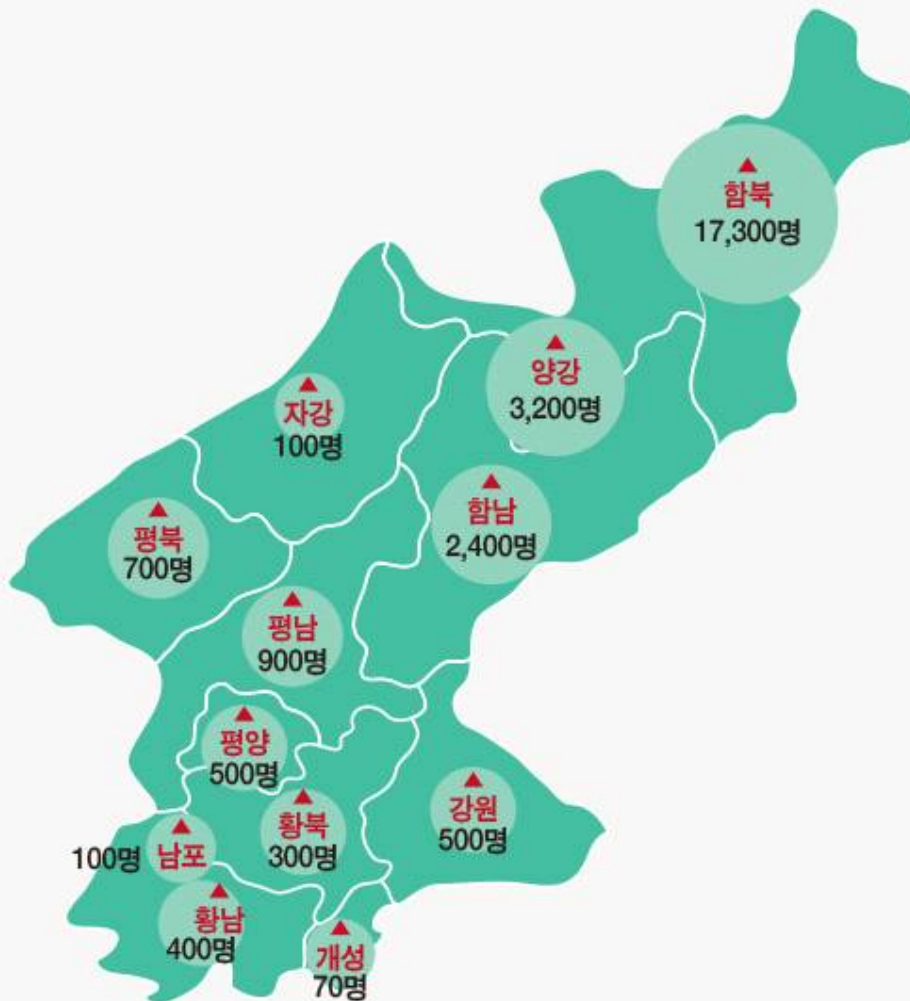
(2014년 12월말 입국자 기준)





북한이탈주민 재북 출신지역별현황

(2014년 8월말 입국자 기준)



<자료. 통일부>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일은
통일 언어의 시작”

高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詩人

“비단 남과 북의 이질화된 언어 뿐 아니라, 19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외로 흩어진 민족의 언어를 다 불러들여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 놓을 겁니다. 이 언어들로 사전을 만들어 놓으면 통일의 언어가 시작되는 거지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이전에 반세기 이상 시를 써온 시인으로 국내외에 잘 알려진 고은 이사장(82).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시를 살았다’고 평가되는 그가 남긴 150여 편의 저서들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 곳곳에 알알이 박혀 별처럼 빛을 발해 왔다. “언어 없는 시대(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언어를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으니, 모국어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는 고은 이사장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안고 갈 임종사업’이라고 표현했다.



70년간 다른 길로 걸어 가버린 남북한 언어

고은 이사장은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우리 모국어에 가진 ‘고난의 역사’ 이야기부터 들려주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20세기 전반은 식민지시대였고, 후반은 ‘해방’이 ‘분단’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 시대였지요. 식민지시대는 우리 모국어, 우리 삶의 실체가 부정당하는 시대였고, 해방 이후 비로소 ‘우리의 모국어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 했을 때 다시 분단을 맞게 된 거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분단 상태가 몇 십 년 더 지속될 경우 남북한 주민들 끼리도 통역 없이는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언어가 이질화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70여년 전 두 언어가 갈라져버렸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文化語)는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많이 달라졌지요. 물론 북한 사전에는 옛날 모국어가 많이 들어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남한의 경우 북한처럼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각 지역의 언어들이 ‘서울 종로를 비롯한 사대문 안에 사는 중산층의 언어’인 표준어에 의해 통합돼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뉴욕과 같은 ‘항구’였던 서울 마포일대는 언어가 매우 다채롭고 화려했지만, 종로나 북촌 등에서 쓰는 언어에 밀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국어의 소멸은 남북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은 이사장은 우리 조상들이 중국,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때 모국어를 가지고 갔지만, 2~3세로 이어지면서 점차 우리 언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모국어’의 의미는 민족사회의 지역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도 말했다.



남북한 주민과 해외동포들의 모국어 집대성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은 남북의 언어 동질성 회복과 겨레말 통합,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해외의 언어를 단일 사전에 수록하는 남북 공동사업이다. 2004년 이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있었고 2007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됐으며 매 분기별 공동회의를 개최해왔으나 2010년 중단됐다. 2013년에 근거법이 개정돼 당초 2014년 4월까지이던 사업기간이 2019년 4월까지 연장됐고, 지난해 사업이 재개되어 10월 말 평양에서 편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사업에 대해 찬성을 했고, 위기가 있긴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다행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기한이 끝났는데도 다시 연장을 해주었지요. 사전은 지금 70%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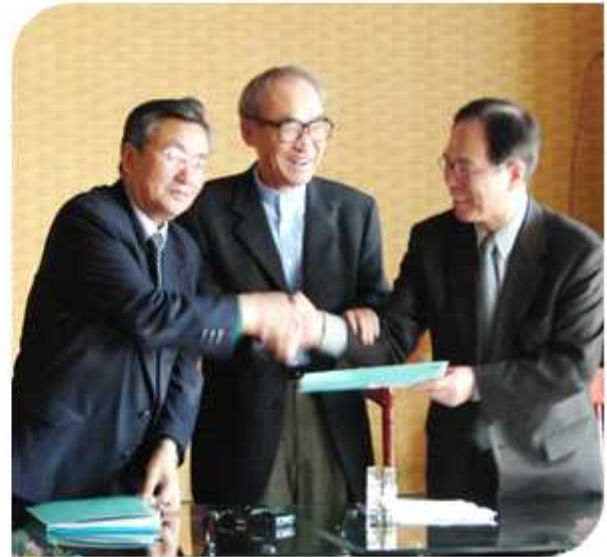
▲ 거래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1차회의)

사전을 만드는 작업은 남북 간 합의를 이루는 '통합의 작업'이다.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술술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편찬위원회가 만나면 악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 등재하느냐 마느냐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하고 다시 타협하는 일의 연속인 거지요."

회의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이 남한을 상징하듯, 평양은 북한을 상징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고은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은 남북한의 전문가,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고가 많지요.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위치, 양쪽 편찬위원장 간 균형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중심을 잡고 이들 뒤에 같이 서 있는 것이지요. 2~3월중 예정된 회의는 개성에서 열릴 것이고, 그때는 저도 동행할 계획입니다."



▲ 4차회의 합의문 교환(개성)

고은 이사장은 사전이 완성된다고 해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온전한 사전, 결점 없는 사전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진화된 사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편찬위원회가 끊임 없이 지속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언어를 다시 올리고, 필요 없는 낱말은 빼는 등, 사전은 늘 새롭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9차회의(금강산)



▶ 13차회의(개성)



언어의 통합, 통일을 시작하는 원리가 될 것



그렇다면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통일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고은 이사장은 “남북한간 언어를 통합해 놓는 작업은 통일을 앞당기는 행위이기도 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을 시작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언어가 삶의 형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지요. 다만 이 작업이 통일에 다가가는 하나의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신해요. 통일된 이후에 그때 부랴부랴 언어를 통합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언어의 통합 없이 다른 통합은 불가능하지요. 모든 일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결혼해서 첫날밤 지낼 때도 여보 당신, 하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웃음).”

통일 언어는 이전에 있던 언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일시대’의 ‘새로운 언어’가 될 것이다. 고은 이사장은 잃어버렸던 언어들을 모아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언어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생활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분단 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통일’되어야

남북통일도 ‘과거로 복귀’는 아니라고 했다. 70년 분단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한반도 몇 천년의 역사를 가름할 새로운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분단이 ‘남북조시대의 연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해도 고구려가 있던 자리에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당시에 도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고, 이후 세종대왕이 압록강 토문강으로 영토를 확장했지만 지금은 그 통합공간조차 깨져버렸다며 ‘재통일’이 아닌 ‘신통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통일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됐지만 그 전에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라는 기나긴 과정이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우리의 통일은 점(點)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긴 선(線)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과정을 선으로 보면, 통일은 자연(自然)이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자연을 닮은 통일’을 이뤄냈을 때 어느 한 쪽에 상처를 주지 않은 행복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을 넘어선 ‘통합’, ‘질적인 통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의 통일은 점(點)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긴 선(線)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과정을 선으로 보면, 통일은 자연(自然)이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자연을 닮은 통일’을 이뤄냈을 때 어느 한쪽에 상처를 주지 않은 행복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 이사장은 ...

1933년생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 52년 출가해 승려로 시작 (詩作) 활동을 하다 58년 '폐결핵'을 발표하고 '현대문학'에 '봄밤의 말씀' 등을 추천받아 등단했다. 60년 첫 시집 '피안감성'을 선보인 이래 시 소설 평론 에세이 등 15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그의 시집과 시선집은 현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세계 25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한국민예총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 문학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미국 하버드대 예칭연구소 초빙교수, 버클리대 동양학부 초빙교수를 지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대자보’보다는 SNS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익숙한 세대. 거대한 담론에 함몰되거나 너무 무거운 사명감에 짓눌리지 않은 채, 자유롭고 즐겁게, 또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생활 속 통일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열혈 통일 청년들. 올해 ‘e-행복한 통일’에서는 ‘통일토크’ 코너를 통해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활동 과정에서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남북청년동아리 L4를 초대했다.

통일토크 참가자

국강호(중앙대 09학번, 정치국제학과, L4 2대 회장), 장유정(이화여대 14, 지리교육과, 부회장), 김희수(동덕여대 12, 국문과), 김형준(카톨릭대 14, 심리학과), 김지수(이화여대 14, 교육학과), 박윤희(중앙대학교 15, 사회복지학과)

L4(Love to Learn Learn to Love)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모여 지난해 5월 결성한 남북청년동아리다. 그동안 토크콘서트 5회, 자원봉사자수련회 2회, 길거리 캠페인 2회, 재중 탈북민 구호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북한인권 토크콘서트에는 ‘열한살의 유서’ 저자 김은주 씨(1차), 음악가 강춘혁, 방송인 김아라 씨(2차), 탈북대학생(3차), 꽃제비 출신의 ‘소년 자유를 훔치다’ 저자 김혁 씨(4차), 북한남성과 결혼한 남한여성(5차) 등이 출연했다.



지난해 인상깊었던 L4 활동

형준 다섯 번의 토크콘서트 중에서 꽃제비 출신의 김혁 저자와 함께한 4차 행사가 기억에 남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콘서트장을 찾아주셨거든요. 행사홍보를 위해 SNS를 주로 이용했는데 페이스북에 '묻고 답하기' 등 새로운 시도도 했어요. 또 한가지 더 꼽자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활동해보니 다를 것 하나 없는 그냥 '동네 형'이더라고요.

희수 저는 길거리 캠페인을 했을 때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을 판넬에 붙여놓고 홍보하면서, 뽑기 게임을 통해 정해진 번호에 붙이면 한반도 모양이 되도록 하는 재미 있는 아이디어도 짜서 나왔어요. 좀 흡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흥미를 갖고 많이 참여해줬어요.



▲L4의 길거리 북한인권 캠페인

강호 이태원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했을 때 실향민 한 분이 보시고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해줘서 참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럴 땐 힘이 많이 돼요.'

유정 자원봉사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희 조는 두 사람 빼고 전부 북한에서 온 친구들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해보니 한국 학생과 사귀는 일, 학교생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단 걸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더 많은 북한학생들이 교실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남 북한 학생들이 터울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L4자원봉사자수련회



L4 회원들에게 북한인권이란?

윤희

저는 북한에서 왔고 아직 그곳에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인권이 개선되려면 물질적 지원보다는 남한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희수

할아버지 고향이 이북 평안도여서 어릴 적부터 고향주민들끼리 모이는 행사에 자주 따라다니곤 했었어요. 대학교 때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사실 대학생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질만한 기회가 별로 없는데,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이야기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L4회원들이 2015년 신입생 모집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지수

공익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 아프리카 기아를 돕는 공적개발원조 분야를 공부했는데, '왜 내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북한사람들을 잊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유정이가 L4를 소개해줬고, 북한인권문제는 제 인생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친구들 중엔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애들도 나중에는 뉴스를 보면 북한인권과 관련한 단어가 들린대요. 자연스럽게 이들을 끌어들이는 '시작'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준

L4의 처음 목표는 매년 200만 원씩 모아서 재중 탈북자를 1명씩 구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기금을 많이 모을 수는 없어요. 토크콘서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해요. 제가 친구 다섯 명을 초대했는데 콘서트 참여 후 소감을 물었더니 좋았대요. 북한인권이 생각보다 다가가기 힘든 것도 아니었고, 쉽게 표현해 주어서 좋았다고요. 그 친구들은 자원봉사수련회도 참가했어요. 그렇게 발을 넓혀가면서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5차 토크콘서트



▲강준혁, 김이라 씨와 함께 한 2차 토크콘서트



▲김은주 작가와 함께 한 1차 토크콘서트



북한인권개선 위해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유정

'인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지만 '북한'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원봉사수련회도 '같이 갈래?'하면 애들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고 질문하곤 해요. 이건 미디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북한인권에 대해 현실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 공감대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수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바뀌야 할 것 같아요. 수능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북한 이야기를 안 건드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강(인터넷강의)을 들어도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북한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좌파' '우파' 이렇게 하니까 선입견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강호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인식을 다 같이 해야 해요. L4는 앞으로도 한국에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 알리고 싶어요.

희수

고등학교 때 탈북여성이 강연을 왔는데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큰 감명을 받기도 했어요. '나는 행복한 거구나', '나도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학생들끼리 했는데 그 때 뿐인 거죠. 그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깐요. 현재 토크콘서트는 저희가 열고 찾아오시라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필요하면 L4를 불러주세요!



▲ L4는 작년 재중탈북자를 위한 구호 성금을 기탁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통일!

윤희

지금처럼 남북한친구들이 모여 인권을 알리고 제3국의 탈북민을 구하는 활동은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통일을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체제 하에서 직접 살아본 저로서는 아무래도 통일이 많이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북한에 있을 때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북한에 대한 반감이 전쟁을 겪은 어르신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형준

작년에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설문지를 들렸어요. 결과를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2030년 안에 통일이 될 거래요. 근데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하고 물으면 싫대요. '통일은 꼭 필요한 걸까?'라고 물으면 또 그렇대요.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거지요. 그 걱정이란 게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인데, 정부에서 통일 후 어떤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를 홍보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 L4회원들(박윤희, 장유정, 김지수, 국강호, 김형준, 김희수 / 좌측부터)

강호

가까운 시일 안에 통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남북한이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 통일이 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려돼요. 제 또래의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무래도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국가경제 성장률보다도 내 월급상승률이 더 낮은데'라며 투덜거리죠. 따라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L4 남북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는...

희수

주변사람들에게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 쪽에서 일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취업과는 상관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다들 자기 먹고 살 길 찾기조차 바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자기 할 일은 하면서 북한인권관련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윤희

대학 새내기라서 우선은 학과공부에 충실할래요. 학점 잘 받아야죠. 졸업하면,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아빠가 직접 지으신 집을 찾아서 아동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게 꿈이에요.

형준

전공이 심리학과다보니 멘토링할 기회가 많아요. 멘토링 과정에서 학생이든 성인이든, 친구든 타인이든 거부감 없게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대화를 가미해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바람은 L4의 확장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크콘서트도 작년보다 재미있게 기획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회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지수**

세상을 교육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게 꿈이에요. 졸업 후 교육 정책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만약 사회인이 됐을 때도 통일이 안 된다면 '통일이 언제 될까?'가 아니라 '통일을 언제 할까?'로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통일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거예요. 이미 통일이 돼 있다면 남북한 간 차이를 줄이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고요.

강호

관심 없는 사람에게 북한인권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웹툰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에 메타포를 넣어보고 싶어요. 즐겁고 놀았는데 곰씹어보면 북한인권 이야기인 거요. 자연스럽게 북한인권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문화적 틀을 L4에서 하고 싶어요.

유정

사범대학생들이 특히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 목표는 교단에 설 친구들 중 3~4명 정도는 이 동아리에 오게 하고 싶어요. 사범대에서도 새로 교육봉사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동아리와 L4도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글/사진. 기자희>



통일에 대해 L4가 묻습니다

통일편익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알게 되면 또래의 다른 청년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통일이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은 그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커다란 편익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통일은 곧 '분단의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단 상황에서 소요되는 분단비용을 소멸시켜주지요. 즉 더 이상 분단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분단비용은 '소모성' 비용이지만, 이 분단비용을 절감해 통일비용으로 사용하면 '소모성'이 아닌 '투자성'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경제 통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북한 인구를 포함하면 한반도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 노동과 소비시장도 확대되며, 더불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니까요.

셋째, '섬 아닌 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공간이 대륙으로까지 확장돼요. 당장 우리 상품의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크게 절감되어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겁니다. 또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도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요.

넷째, 무형의 이익도 커요. 굴절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될 겁니다. 통일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또한 북한주민에게는 보다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와함께 자유와 인권 또한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새학기 두근두근 어깨동무멘토링

양천구협의회 임경하 회장과 중학생이 된 성현이

진정성과 사랑이 담긴 멘토링은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인생의 시기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크게 변하는 '터닝포인트'가 있다.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한 멘티학생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가슴 따뜻한 양천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멘토링 이야기를 들어보자.

From 임경하 회장 to 성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와, 적응을 잘 해야겠지. 중학교 들어가서 생소한 것, 궁금한 게 있을 땐, 선생님(임경하 회장)과 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혹시 어려운 일, 막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만난 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이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됐으며, 예의범절도 배우게 돼서 좋다고 성현이가 이야기 말했잖아?

돌아보면 작년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데 올해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런데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또박또박 너무 말을 잘한다야. 훌쩍 자란 것 같아.

From 성현 to 임경하 회장

전 어깨동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것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올해도 계속 어깨동무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어요.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중학교 입학 앞두고 초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후회가 있었어요. 특히 글씨체가 안 좋다보니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요즘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학교에 가면 일단 숙제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작년에 뒤에서 저를 계속 챙겨주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앞으로도 항상 제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참여할게요.



7살에 남한에 온 성현이, 한국어를 몰랐어요

올해 5초등학교를 졸업한 성현(가명)이는 2007년 엄마와 함께 서울에 왔다. 엄마는 성현이가 처음엔 중국어밖에 하지 못해서 적응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다행히 유치원에서 손짓 발짓으로 3개월 만에 한국어를 익혀 말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 한글을 떼지 못해 걱정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다 따라가는데 성현이만 공부를 못 따라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더 신경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2월 어느 날, 양천구청에서 엄마와 함께 만난 성현이는 이제 중학생이 돼서 그런지,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엄마는 성현이가 지난해 민주평통 양천구협의회 어깨동무 멘토링에 참여하고부터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했다. 일단 웃음이 많아졌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며, 특히 예의범절을 잘 지키게 된 것 같다고. 게다가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성적도 약간 향상됐다고 한다.



처음엔 '이상한 데' 끌고 가신다 생각했어요

‘양천드림스타트’의 추천을 받은 성현이는 민주평통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캠페인 중 하나인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의 멘티가 되었다. 성현이 엄마는 가끔씩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사실 처음에는 긴가 민가 했어요. 그런데 결연식 때 와보니 인성교육 같은 것은 잘 가르쳐주실 것 같더라고요. 공부야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인성교육을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다양한 문화체험도 자주 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에 성현이가 불쑥 덧붙인 대답이 재미있다.

“처음에는 엄마가 이상한데 끌고 가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회장님도 무척 좋으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멘토 선생님과 함께한 2014년, 행복한 추억이 가득

지난해 양천구협의회에서는 15명의 멘토자문위원들이 멘토링 교육을 받았으며 5월 28일 결연식을 열었다. 이후 박물관이나 서점을 방문해 문화체험을 했고 북한이탈주민 어울림한마당에도 참여해 공연이나 체육대회 등을 함께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여름방학캠프를 겸해서 제주도로 멘토-멘티 여행을 다녀왔고, 9월과 10월에는 놀이동산 체험을 했으며, 11월엔 목장체험을 다녀왔다. 2015년 들어서는 지난 1월에 9차 모임을 갖고 지난해 활동내용과 올해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경하 회장은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서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우관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임 회장은 멘토링 행사에 두 번째 참여하고 돌아가던 날 차안에서 성현이가 문화체험이 즐겁다고, 앞으로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겠다고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또한 성현이가 '멘토 위원님들은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도 이렇게 멘티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멘티 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적 받은 어깨동무하기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다른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주기를 바라서야."

한편, 성현이에게 작년에 가장 기억이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묻자 1등으로 놀이공원을, 2등으로 놀이공원을 꼽았다. 이제 중학생이 됐다 해도 아직 애는 애인 모양이다. 놀이기구를 더 타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도중에 집에 가야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는 말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아이들의 영원한 로망'인 놀이공원을 빼면 그 다음이 제주도 여름방학캠프다. 성현이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고 멘토선생님이 가족같이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평소 바쁜 자문위원들과 가장 오랜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1박 2일의 체험이 친밀감을 준 것 같았다. 임경하 회장은 "전화통화를 할 때도 처음에는 무뎠던 학생들이 제주도를 다녀오고 난 후부터 눈에 띄게 친해졌다"고 말한다. 성현이는 "제주도에 가서 임경하 회장님께 고기상추쌈을 싸드린 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처음에는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맛있게 드셔서 기뻐요."

♥ 멘티의 꿈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정성껏 멘토링할 것

임경하 회장은 지난 1년 성현이가 많은 성장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서먹해서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모임이 진행되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의사표현을 잘 하게 됐으며, 시간약속도 잘 지킨다. 다른 멘토 위원들에게도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어린 멘티 동생들도 먼저 나서서 챙기는 성현이가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성현이는 '꿈 욕심'이 많다. 엔지니어도 되고 싶고 요리사, 사진작가도 되고 싶단다. 엔지니어를 직업으로 하고 요리사나 사진작가의 꿈은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배워서 이를 거라고 말한다. 꿈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힘이다. 그걸 알기에 임경하 회장은 성현이의 꿈을 한껏 밀어올려주고 싶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남한에서 작은 꿈을 하나 하나 실현해갈 때마다 통일은 더욱 우리 가까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빨리 정착하고 자녀들이 또래 애들에게 뒤지지 않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과 정성을 쏟아 멘토링 할 계획입니다. 통일보다 먼저 북한에서 내려온 이탈주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박대통령 말씀처럼,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양천구 마스코트 인국이가 초등학교에 가요! ●

박화순 자문위원과 인화-인국 남매의 멘토링 이야기

양천구협의회 자문위원들 모두가 귀여워하는 막내 인국이(가명)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아빠는 남한에 계시지 않고 엄마는 간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집에 있을 누나 인화(가명)와 인국이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합니다.

인국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잘 적응해 줘야 해요.

부모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은 거 아닐까요? 올해는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유치원 다닐 때와는 좀 다른 멘토링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엔 말도 잘 안 듣고 천방지축, 막무가내이긴 했어요.

아단도 가끔 쳤고요. 지금은 인사도 잘 하고

예의도 발라요. 자꾸 안기려고 하고 손을

잡아끌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예쁨을

받는 것 같아요. 누나 인화에게는 새학기

되니까 책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 해줬어요.





2013년 여름 임진각, 열대 스콜처럼 세차게 내리치는 빗속에서 두 명의 학생이 남아 'KBS역사·통일골든벨대회' 최종 우승자를 가리고 있었다. 승부가 갈리기 전 각오를 묻는 말에 "지난해엔 공주 한일고가 준우승에 그쳤지만, 올해는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씩씩하게 말하던 김도훈 학생은 그날 정말 '최후의 1인'이 됐다.

{ 본선 열기보다 더 뜨겁고 치열한 '교내 예선' }

'e-행복한 통일' 취재팀과 만나기 위해 지도교사 신인수 교감선생님을 따라 내려 온 학생들은 모두 4명(김도훈·이준혁·이호성·정동현, 3학년)이었다. 2013년 KBS역사·통일골든벨 최종 우승자 김도훈 학생도 함께였다. 도훈이를 제외한 준혁이, 호성이, 동현이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출전해 100여 명의 학생들과 실력을 겨뤘다.

그런데 도훈이의 '통일골든벨 도전기'가 재미있다. 1학년이었던 2013년엔 원래 전국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아깝게 놓쳤는데, 우수학교에 배당된 정원이 한 명 더 있어서 운 좋게 나갈 수 있었고 놀랍게도 최종 승자가 됐다. 지난해의 경우 교내대회 1위로 지역예선에 나갔지만 탈락했다가 패자부활전에서 부활, '평화상'을 수상하며 전국대회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최후의 1인'이었던 학생은 두 번 출전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출전 기회를 양보해야 했다. 도훈이는 "통일골든벨 덕분에 의미 있는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한국사 능력시험이나 다른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다"며 활짝 웃었다.



▲ 2014년 충남도·대전시·세종시 지역회의 예선에서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동현이는 “지난해 학교, 지역, 전국까지 총 세 번의 골든벨 대회를 치렀는데, 가장 치열했던 대회가 바로 한일고 교내 대회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2013년 최종우승자를 배출해서인지 교내대회는 소극장이 꼭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전국대회보다 더 마음을 졸여야 했다. 심지어는 만점자가 세 명이나 나왔다고. 지역 예선 역시 작년에는 충남, 대전, 세종권역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치열하긴 마찬가지. 이 대회에서 평화상을 수상한 동현이는 전국대회에서 최후의 8인이 될 때까지, 준혁이와 호성이는 11인이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저희는 먹기만 했어요” }

공주 한일고등학교는 민주평통 공주시협의회 제안으로 2011년부터 통일골든벨에 참가했는데, 그 때 대상 포함 7명이 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도 7명, 2013년 6명, 2014년에는 5명이 입상했다. 동현이는 “한일고 골든벨의 힘은 신인수 교감선생님”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저희는 신인수 선생님이 잘 만들어주신 떡을 먹기만 했을 뿐이에요. 떡을 잘 만드시는 선생님 덕분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떡을 잘 먹을 것 같은(?) 동현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런데 도훈이도 옆에서 한 마디 거든다. “신인수 선생님이 주신 문제은행엔 자료가 정말 많아요. A4용지로 쌓으면 10센티미터가 넘을 정도인데, 한 번 넘겨보기만 해도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신인수 교감선생님(중앙)과 'KBS역사·통일골든벨'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왼쪽부터 이준혁·이호성·정동현·김도훈)

한일고 학생들의 교재가 되어준 문제은행은 신인수 교감선생님이 25년간 윤리, 도덕을 가르치며 시험에 출제하기 위해 만들어둔 '문제 보물창고'였다.

"2천 개가 넘는 문제를 다 오픈했어요. 사실 조금은 쓸쓸한 이야기지요. 만약 지금도 아이들이 도덕교과에서 통일 분야를 배운다면 오픈할 수 없었겠지요? 시험문제를 내야 되니까요(웃음).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아이들 모두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호성이는 여기에 더해, 친구들과 함께 묻고 답하면서 확인하는 공부방법도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준혁이는 근현대사부분을 읽고 내용을 연표로 정리했

는데, 통일골든벨뿐 아니라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신 선생님이 주신 북한연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나 관련 정보도 많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2013년 충남지역회의 예선에서 한일고등학교는 대상을 포함 총 8개의 상을 수상했다.

{ “통일을 주제로 소논문 쓰는 아이들, 골든벨 영향” }



신인수 교감선생님은 통일골든벨을 통해서 아이들이 통일과 역사에 대해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개인연구과제 시간에 준혁이는 '통일헌법에 대한 구상'을 주제로 소논문을 썼고, 또 다른 출전 학생은 '남북통일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쓴 것을 보면서 통일골든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혁이는 "통일골든벨을 준비하면서 통일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소논문도 통일헌법에 대한 구상을 썼고, 남한과 북한 헌법을 비교해보면서 통일 후 가장 적합한 헌법을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해봤다"고 말했다.



▲ 통일골든벨 준비를 도와준 신인수 교감선생님(사진 중앙)과 이준혁·이호성·정동현·김도훈 학생(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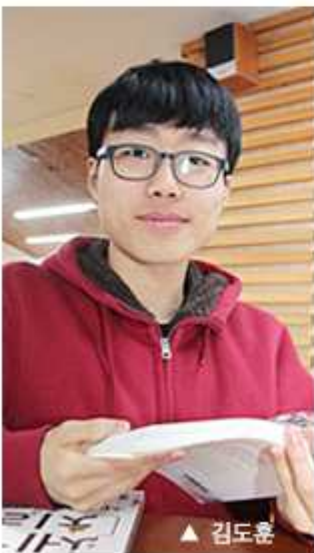
동현이는 "청소년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라며, "미래에 넓은 세계로 나갔을 때 통일 분야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아 놓은 것 같다"고 했다. 또 "지난해 전국대회에서는 탈북 대안학교 학생과 해외거주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훈이는 "아직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정부 통일방안이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 호성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공부하면서 당시 민족 최대의 당면과제가 독립이었듯 지금은 통일이 그러한데, 열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다"며,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 정치가 법조인 PD 학자 등 꿈은 달라도, 통일염원은 한마음 }

이날 만난 학생들의 꿈은 매우 다채로웠다. 동현이는 정치가나 외교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일 내에 경제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두 경험을 살려 양진영에 연결고리가 되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도훈이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상을 알리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고, 통일 후엔 북한지역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독도나 동해표기 등 역사적 문제를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외교관의 꿈도 함께 꾸고 있다. 도훈이는 통일이 돼서 기차로 육로수송이 이뤄지면 교과서에나 나오던 말, '동북아 허브'가 진짜 실현될 것 같다며 눈을 반짝기도 했다.



호성이는 방송사의 PD가 돼서 사회문제, 국제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제가 성인이 되어 PD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남북이 통일됐으면 한다”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래희망이 법조인이라는 준혁이는 “통일이 되면 불편하거나 경제발전이 지체될 수 있겠지만, 후손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며, “독일도 통일 후 잠시 주춤했지만 유럽연합의 최강국이 되었듯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루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생길 것 같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제자들의 인터뷰를 끝까지 경청해주던 신인수 교감선생님은 “통일골든벨을 통해 아이들이 통일과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대개 청소년들은 통일 의식이 부족하다는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골든벨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에서 희망을 읽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이 제도권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 스스로 역사와 통일에 대해 폭넓게 공부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통일관과 역사관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기자희〉

북한의 이사와 주거생활



김 동 식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철이 다가온다. 해마다 봄이 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사철. 남한에서는 보통 개학을 앞둔 봄과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학군이 좋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도 많이 오른다. 그러면 북한에도 이사철이 있고, 주민들이 남한처럼 봄과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할까?

🏠 북한에는 이사철, 이삿짐센터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는 이사철이라는 것이 없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한마디로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북한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앞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주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도 간부들이 보직이동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사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자기의 의사와 적성과 상관없이 당국에서 배치하는 직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 도중에 마음대로 직업을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자기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 철저하게 거주지별로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해서 이사까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도 직업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 또는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이사를 가려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 평범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수요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이삿짐센터가 있을 리 없다.

🏠 주택거래소가 부동산중개소를 대신하는 북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를 할 경우 먼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집을 알아본 다음, 적당한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하고 이삿날이 되면 이삿짐센터에서 이사를 대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이사를 할까? 북한에서는 이사를 하려면 먼저 각 시·군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라는 부서에 가서 주택사용을 허락한다는 증서 즉 '주택사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배정과는 명칭 그대로 주민들에게 새로 지은 주택을 배정하거나 기존 주택의 사용권을 조절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주택배정과 소속 직원들은 파워가 막강하고 뇌물도 많이 받는다.

주택배정과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배정과가 허락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사용권이지 주택소유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택을 비롯한 북한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100% 국가소유이기 때문이다.



흥미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최근 들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택거래소'를 통한 주택 사용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택배정과는 기본적으로 새로 지은 주택 배정 업무만을 하도록 하고, 주택배정과가 관장하는 주택거래소를 별도로 설치해 놓은 다음 기존주택 사용권 거래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거래소는 개인들로부터 주택사용권 매매를 위탁받아 이를 가운데서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평양의 고급 아파트 1채 가격이 30만 불씩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사용권에 대한 매매가격이다.

🏠 아파트와 주택만 있는 북한

우리나라의 주거시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빌라나 연립주택, 상가주택 또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표현이 다양하다.

물론 북한에도 아파트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명칭은 '아파트'와 '주택'이라는 두 가지 표현밖에 없다. 2층 이상 되는 주택(연립주택)은 무조건 아파트라고 하고, 단층짜리 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주택 또는 단층집이라고 하며 '땅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층짜리이면서 1자로 길게 여러 가구가 붙어 있는 주택은 하모니카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모니카집'이라고도 한다.

현재 북한의 평양이나 함흥·원산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 편이지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단층주택이나 2~3층짜리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까지 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강재와 시멘트도 많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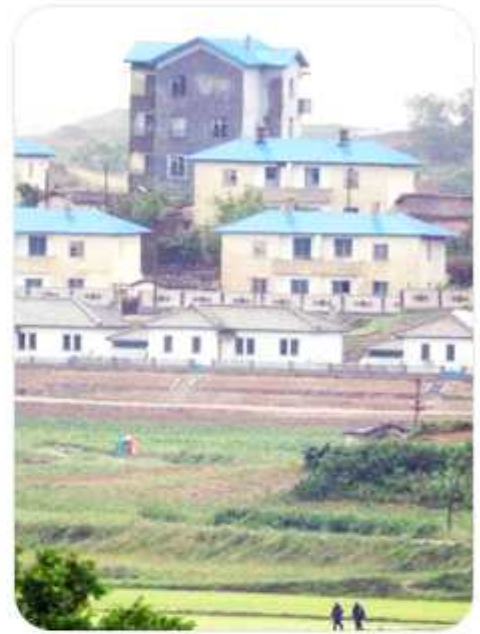


특히 농촌지역에는 흙벽돌로 지은 단층짜리 단독주택이 많은데, 이를 '문화주택'이라고 한다. 문화주택은 60년대 초반에 지어진 방 2칸에 부엌이 달린 단독주택인데, 아직도 북한 농촌지역의 주요 주거시설이다. 물론 북한 농촌지역에는 초가집도 많다. 북한은 1980년 진행된 노동당 제6차 대회를 앞두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초가집이 그냥 남아 있다.

🏠 아파트에 아궁이가, 방안에는 텐트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거환경은 한마디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나 단층주택을 불문하고 난방이 가장 큰 문제다. 심지어 아파트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파이프와 별도로 구들장을 놓고 아궁이까지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보통 평양과 대도시에는 화력발전소 또는 자체 보일러를 돌려 난방을 보내주고 있으나, 연료난으로 발전소나 보일러 가동이 제대로 안 되서 난방 또한 정상적으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난방이 안 될 경우 물을 때서 방을 덥히기 위해 아궁이를 만드는 것이다. 아궁이가 없는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이 공급되지 않으면 집안에 비닐텐트를 설치한 다음 있는 옷을 모두 입고 온 가족이 텐트 안에 들어가 서로 부둥켜안고 체온으로 텐트 내부를 덥히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문제도 큰 애로사항이다.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오지 않아 서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층에 집을 배정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층에 살려고 한다. 단전(斷電)이 자주 되고 단전시간도 길어 냉장고가 거의 필요 없다. 그래서 몇 시간 단전이 되어도 빨리 녹지 않아 식품이 덜 상하는 냉동고가 인기 있는 제품이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열기와 같이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가전제품은 아무리 추워도 당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경우 물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전기를 비롯한 각종 물자의 부족으로 수도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 물만 겨우 공급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가까운 곳에 가서 지하수를 떠서 들고 아파트를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샤워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거의 불가능하다. 겨울에 더운 물이 나온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겨울에 더운 물이 나오는 아파트는 최고 위급 간부들이 사는 고급아파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냄비에 물을 조금 끓여 거기에 찬물을 약간 섞은 다음 그 물에 적셔낸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식으로 샤워를 대신한다.

또한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스나 석유 등 연료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은 원래부터 곡식을 심기 위해 베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떨감이 없어 나무를 베어 떨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그 다음 나무를 베어낸 빈자리에 곡식을 심은 것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함경북도와 경상도 사투리는 억양이 매우 비슷하다. 한 탈북대학생이 경상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다보니 고향 말(함경북도)과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경상도 억양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13호>, 고향이 거제도냐고 물어보기에 함경북도에서만 40년 살았다고 대답했던 이야기<15호>를 듣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이유가 뭘까?

- [13호 바로가기](#)
- [15호 바로가기](#)

함경북도 말, 경상도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함경북도에서 온 A학생은 남한 친구 중 한 명이 ‘경상도에 왔냐며, 자신의 할머니랑 사투리가 비슷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보면 두 지역의 말투는 악센트가 강하고 성조가 남아있어 매우 유사한 느낌을 준다. A학생은 “우리(함경북도) 말은 툇이 높다”며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면 반가워서 막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지방 사람들은 싸우는 줄 안다”고 말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도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다.

경상도와 함경북도는 분명 최남단과 최북단으로 극과 극의 지리적 차이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걸까? 정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세종 6진 개척 당시 여진의 땅이었던 함경북도에 김종서 장군이 새로운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때 경상도 사람들을 함경북도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또 만주나 간도,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려던 이 지역 조상들이 함경도 지방에 눌러앉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슷한 건 억양일 뿐 남북한 말은 실제 쓰임에서 매우 달라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투리 쓰면 애들이 모(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야~ 과제가 수태 많은데 늦어서 매사하다. 내가 인차 갈 테니 같이 하자’ 이러면 모 알아들지요. ‘과제가 엄청 많은데 늦어서 부끄럽다. 내가 금방 갈 테니 같이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 B씨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험을 했다.

“제가 사발 까실거라고 했더니 못알아듣는 거예요. ‘사발 까신다고요!’ 하니깐 ‘뭘 부신다고?’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설거지라고 하는데 북한에선 사발 까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남북한은 말 뿐 아니라 노래하는 발성법도 조금 다르다. 북한에서는 ‘주체발성법’이라 불리는 가성을 주로 쓰기 때문.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리지 않았던 여중생 A양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중3때 졸업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펜션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노래 불러보라고 해서 불렀는데, 제가 일반 가요도 트로트처럼 부르다며 애 늙은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위에서 예로든 것은 극단적인 경우다. 실제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99%이상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다. 다만, 남북한 주민간 사용하는 말이 더이상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바람에서 이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제 막 남한에 온 언니, 중국스타일~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탈북민을 봤을 때, 남한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를 대략 감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하나원에서 갓 나온 친구랑 한 달된 친구, 세 달된 친구, 반 년된 친구가 딱 보여요. 딱 뭐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억양이나 패션 같은 것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패션의 경우 ‘중국스타일’과 ‘남한스타일’로 구분한다. 처음에 오면 중국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는 것. 물론 중국스타일이 촌스럽고 남한스타일이 세련됐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이전 것’으로, 남한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최신 것’으로 여기고, 남한스타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년들의 경우 적응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면 정착금이 있으니깐 옷을 사도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꼭 중국스타일의 옷을 사가지고 와요. 본인들은 멋을 낸다고 한껏 차려입었는데 남들이 보기엔 ‘아이 구야’ 해요. 여기 스타일이 아닌 거죠.”

B학생은 그래서 탈북 후배들이 오면 적어도 3개 월 동안은 탈북 선배들이 물려주는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한다.

“패딩이나 파카라는 말도 모르고 동복이라고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아직 이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해요. 정 모르겠으면 꼭 우리가 주는 거 입으라고 말해요. 남이 입던 옷을 내가 왜 입어? 이런 애들은 꼭 사놓고 후회해요.”



탈북여성 B씨도 중국체류기간이 길었는데, 한국으로 오기 전 큰 맘 먹고 구입한 옷을 결국 2년만에 버리게 됐다. “중국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한 거, 레이스 달린 거, 빨간 색깔의 옷들요. 중국에선 이름(브랜드) 있는 옷이었고, 나름 위아래 예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한국 사람들은 수수하게(심플하게) 입잖아요. 저는 빨간색 옷이 좋은데 한국에서는 60~70대 분들이 빨간색 옷을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입는 스타일이라 중국 사람으로 오해 많이 받았어요”

대중교통 적응기 ‘그땐 그랬지’

탈북여성 C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나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그의 발을 묶는 게 있으니, 바로 ‘낯설기만 한 대중교통’이다.

“하나센터에서 다 배웠는데도 버스를 탈 땐 한동안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목적지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말투를 이상히 여길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망설이다 한 정거장 더 가기도 했고요. 사실 신기하기도 했어요. 교통카드를 대기만 했는데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단말기에서 사람 말소리가 나오는 것도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는 것도 어렵다. 또 설령 지하철을 잘 타고 내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엄마랑 같이 집 근처 역에 내렸는데 그날따라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한참 헤매다 돌아오니깐 엄마는 ‘집이 지하철과 가깝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먼 거니?’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가 정 반대방향 출구로 나갔던 거지요.”

이렇게 집이라도 잘 찾아오면 다행인데 탈북청년 D씨는 하마터면 ‘남한 미야’가 될 뻔 했다.

“아빠가 남한 맥주랑 막걸리가 맛있다고 마트에서 사오셨는데 핸드폰을 안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땐 연락할만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거든요. 필요한 물건을 산 것까진 좋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소 체계도 다르고 그 집이 그 집 같고... 20~30분 들다가 겨우 찾

아 들어갔지요.”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빨리빨리’ 시민들을 실어다주는 지하철이 고마울 때도 있었다. 탈북여성 B씨는 7살 아들을 놀이동산에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들쳐 업고 지하철 역사로 들어왔을 때 전동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다. 전속력으로 뛰어 승강장에 왔는데, 눈앞에서 막 출발해버리는 전동차. B씨는 울상이 되고 말았다.

“남한에선 기차(전동차)가 자주 다니지만 이북(북한)에서는 차가 한 번 가면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땐 남한에 온 지 얼마 안되다보니 무조건 저 열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금방금방 오는 걸 아니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지요.”



3기 통일공공외교대사의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되다! 3기 발대식 및 2기 대사 임명식 개최

물웅덩이에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면 전체에 파동이 퍼져가듯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한 물방울'이 되어 전 세계인과
통일의 메아리로 공명하고자 합니다.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청춘,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청소년, 청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2기 대사 임명, “구체적인 통일의 꿈을 꾸게 됐어요”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2014년 12월 30일(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분단국의 이미지를 견어내고 21세기 다가올 통일의 꿈을 70억 전세계인들에게 알려나갈 3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과 2기 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3기 도전자로 250여 명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2기 대사에 선정된 200명의 학생 중 일곱 명이 임명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 박기태 반크 단장과 2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들

사례발표1 2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 김하람(송실대)

김하람 학생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우연히 하나원 교류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군대 전역 후 미국의 친척집에 다녀왔을때, 사촌동생이 '75%의 북한인(조부모와 외조부의 고향이 북한)', 북도 남도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고 통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하람 학생은 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나가며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올려 홍보했다. 주변에서 걸으려는 별 반응이 없어도 막상 만나면 '네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다'며 관심을 보이곤 했다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귀찮게 생각하다가도, 몰랐던 이야기라며 귀를 기울여줬다고 한다. 특히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서 온 형을 만나게 됐는데, 함께 의기투합해 남북대학생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함께 수업을 듣는 몽골, 중국, 리투아니아(유럽) 친구 등에게도 통일 한국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한다. 하람 학생은 "예전에는 막연히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쫓는데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 외국인 친구에게 통일한국을 설명중인 하람 학생



사례발표2 2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 윤채원(경기외고)

윤채원 학생은 통일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자세히 알게돼 유익했으며, 통일도 통일이지만, 한국 자체를 홍보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다고 한다. 직접 영어로 된 피켓이나 전단을 제작해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에 가서 캠페인을 벌인 것도 대견하다. 채원 학생은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방문해 외국인들을 만나면 '통일에 대해 홍보해도 될지'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 통일 한국의 의미와 비전을 설명하고, 준비한 자료와 젤리를 나눠줬다고 한다. 채원 학생은 이번 활동이 "소중하고 특별한 활동이 되었다"며 후배들도 "주눅들지 말고 통일외교활동을 하면서 재미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공공외교2기,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한예린(인천부개여자고등학교)

게시물을 학교에 붙이고 동아리와 반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 알렸어요. 그 옆에는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적는 종이를 붙여줬는데 친구들이 적어줘서 그 코멘트도 같이 올렸어요. 또 외국인 대상으로는, 이집트 이탈리아 프랑스 등 펜팔친구를 만든 다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알리는 엽서나 지도를 함께 우편물에 넣어서 보내줬어요. 통일이 되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들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해요.



이현정(인명여자고등학교)



그전에는 외국인친구가 한명도 없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여럿 사귀게 됐어요. 통일에 대해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국제정치외교전문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제안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리더가 되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백주영(대전외국어고등학교)

통일공공외교대사 활동을 하면서 세계에 널리 우리나라를 알리겠다는 꿈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한국에 대해 홍보할 때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어요.



장휘(고려대학교)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활동은 단순히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요!

3기대사들의 눈부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기 대사 임명식에 이어 곧바로 3기 발대식이 치러졌다. 3기 발대식에서는 박찬봉 사무처장의 축사에 이어 박기태 반크 단장이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대사의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통일의 민족사적 의의와 청년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옥다혜 연구원이 통일공공외교대사 활동 방법을, 김보경 반크 연구원이 통일공공외교대사 활동 팁에 대해 설명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운동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로 인사 말을 시작했다. 박 사무처장은 “일제 때 독립운동가, 해방 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해외로 나간 파독광부 간호사들, 이 연장선상에 오늘의 통일운동이 있다”며 통일운동은 온 국가와 민족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광수같은 천재 문학 작가가 일제에 앞장서게 된 것은 독립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의 독립의 꿈은 무르익고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통일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계 속에 통일이 정당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태 단장은 MVP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MVP에서 M은 미션으로, 반크 후에도 통일한반도 대사로써 마음속에 꾸준히 미션을 갖는 것, V는 비전으로, 전세계 70억 인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을 창출해 보는 것, P는 피플로,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열정과 꿈들을 같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70억 세계인 중 1%의 한국인이 70억 세계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단장은 “스스로의 인생에 찬란한 MVP가 되고 대한민국인이 70억 인구에게 MVP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박기태 단장

민주평통과 반크가 함께한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에는 작년 여름 1기 발대식 이후 총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들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통일의 꿈을 알리고 설득해 나가면서 21세기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가이미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공공외교대사 3기활동, 이렇게 할래요!

임주연(제주아라중학교)

원래부터 통일과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기다렸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참가자격이 부여돼서 1학년이 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북한말도 잘하시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국어교사가 꿈인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도 알려주고 북한말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고구려 벽화를 직접 보고 싶는데 통일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박상훈(서울 삼육고등학교)

강의를 통해 북한의 실제 모습에 대해 알게 됐고, 통일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반크가 학교에 찾아와 강의를 했는데, 그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잡혔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일은 꼭 해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고3이라 시간이 많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김지희(전북대학교)

이번 학기에 동아시아사 특강을 들었는데 한중일은 물론 베트남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한국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공부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번에 통일공공외교대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해요. 오늘 제가 해야만 누군가가 알 수 있고 제 한 번의 눈길이나 관심이 타인에게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분단 70주년 새해 첫 날 현충원 참배, 통일 다짐



“광복 70년 그러나 분단 70년,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환경대 수석부의장은 1일 운영, 상임위원 및 협의회 간부위원, 사무처 간부직원들과 함께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현충원 참배 후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현 수석부의장은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통일의 과업도 우리의 희생, 발상의 전환 그리고 과감한 모험을 걸지 않고는 결단코 이 시대에 이룰 수 없다”며, “정면으로 통일을 향한 도전의 입장으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통일준비는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8천만 한민족 전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 8천만의 조직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주평통은 배전의 각오를 다지고 통일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년 인사회 개최

민주평통은 1월 6일 사무처 2층 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환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핵심사업인 '통일'과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평통이 통일 준비에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는 ‘통일대박’ ‘신뢰외교’ 등을 통해 통일 여정에 있어서 획을 긋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민주평통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덕분에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며 자문위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구미시시협,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돕기 의약품 전달

경북 구미시협의회는 1월 14일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돕기 의약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2012년 민주평통 키르기스스탄지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구미시협의회는 고려인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내 의료단체들을 통해 지원받은 의약품 및 성금을 민주평통중앙 아시아협의회 자문위원이자 키르기스스탄 비쉬켈인문대학교 교수인 백태헌 교수에게 전달하여 현지 고려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협의회는 이번 의약품전달 외에도 연탄 지원, 태극기 배부, 공원 가로등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업무 추진계획 심의·의결



민주평통은 1월 27일 사무처에서 제13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현경대 수석부위원장의 개회사 △박찬봉 사무처장의 인사말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의 '통일준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현안보고, △민주평통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의 △기타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부산 북구협의회



▲ 충남 천안시협의회



▲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부산 북구협의회와 충남 천안시협의회는 각각 12월 15일과 16일 '2014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부산 해운대구협의회는 12월 11~12일 부산2 권역(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 경기 지역회의



▲ 강원 흥천군협의회

경기 지역회의는 12월 22일 경기지역 31개 시·군 협의회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국민 훈·포장, 의장 표창 전수식 및 통일 강연회'를 열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는 같은 날, '통일미래를 위한 강연회 및 송년의 밤'을 열었다.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울산 지역회의



▲ 경기 수원시협의회

제주 서귀포시협의회는 26~27일 '2014 찾아가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울산 지역회의는 29일 '2014 통일강연회 및 우수협의회사례발표회'를 열었다. 경기 수원시협의회는 1월 12일 '2015년 신년인사회 및 통일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충북 청주시협의회는 1월 21일 청주시민들과 함께 '2015 청주시 통일지도자 아카데미(4주과정)'를 열었다.



◀ 충북 청주시협의회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기 가평군협의회



▲ 전남 화순군협의회



▲ 충남 공주시협의회



▲ 충남 계룡시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는 12월 17일 설악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남 화순군협의회는 16~17일 화순중학생들과 함께 '2014년도 청소년 통일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충남 공주시협의회는 18일 공주신원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4 초등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를 열었으며 충남 계룡시협의회는 22일 용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비사회인(고3) 특별 참여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 달성군협의회 ▶



▼ 전북 지역회의



대구 달성군협의회는 12월 17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평화통일염원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으며 전북 지역회의는 26일 자문위원 및 통일나래 동아리 회원 등과 함께 '통일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청년위원 통일 워크숍'을 열었다.



▲ 전남 나주시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전남 나주시협의회는 12월 24일 나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겨레이야기팀을 초청해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는 24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10회 도전! 통일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주시협의회는 통일안보현장 견학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11~19일 '2014 평화통일염원 글짓기' 공모를 실시해 30일 시상식을 가졌다.



▲ 강원 삼척시협의회



▲ 경기 연천군협의회



▼ 부산 연제구협의회

강원 삼척시협의회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고등학교학생들에게 '2014년 미래세대 통일홍보교육'을 총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경기 연천군협의회는 26일 대광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부산 연제구협의회는 12월 30일 '부산 청년 통일공감 강연회 및 2014년도 청년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 강원 춘천시협의회

강원 춘천시협의회는 12월 26일 소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마무리했으며, 경남 김해시협의회는 29~30일 천안함과 제3땅굴 등 통일현장을 방문해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인천 계양구협의회는 1월 16일 '제10회 어린이 평화통일 가족신문 만들기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충북 청주시협의회는 청주여자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충북 청주시협의회 ▶



▲ 경남 김해시협의회

▼ 인천 계양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경북 안동시협의회



▲ 대전 서구협의회



▲ 경북 김천시협의회



▼ 충남 논산시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는 12월 12일 북한이탈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으며 경북 김천시협의회는 14일 여성분과위원들이 모여 담근 김치를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경북 안동시협의회는 18일 탈북민과 함께하는 '송년의밤 및 팔죽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남 논산시협의회는 23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전달했다.



◀ 경기 안양시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 경기 파주시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 ▶

경기 파주시협의회는 12월 21일 파주시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한마음 송년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안양시협의회는 23일 포시즌코리아 웨딩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활동평가보고회'를 열었다. 경기 고양시협의회는 26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4 활동보고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고, 대구 수성구협의회도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동절기 건강강좌 및 행복나눔 송년회'를 열었다.



▲ 충남 아산시협의회

▲ 대전지역회의

충남 아산시협의회는 30일 '2014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역회의는 12월 29일 통일의자매들이 모여 만든 빵과 케이크를 북한이탈청소년 공부방과 노인요양원에 전달했다.



▲ 경남 진주시협의회

▲ 대구 남구협의회

▲ 경기도 고양시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1월 31일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멘토-멘티 겨울방학캠프를 다녀왔다. 같은 날 대구 남구협의회 여성자문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식사도 하는, 실맛이 떡국나눔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 고양시협의회는 1월 29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통일특강을 실시하고 참고도서를 전달했다.



통일문화 사업



▲ 경기 용인시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 부산 수영구협의회

경기 용인시협의회는 12월 16일 여성 용인시민(일명 '줌마')들과 함께 '통일맞이 줌마 평화콘서트'를 열었으며 경기 과천시협의회는 21일 과천 구세군 양로원에서 '찾아가는 통일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 수영구협의회는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희망찬 새 출발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풍선을 나눠주었다.

지역 봉사활동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서울 양천구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 경북 군위군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12월 18일 다문화 가정 대상,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5호점 행사를 가졌다. 서울 양천구협의회는 22일 행복나눔 사랑의 빵 만들기를 열었으며 같은 날 강원 속초시협의회는 관내 소외계층 가정에 연탄을 지원했다. 경북 군위군협의회는 23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통일 홍보 캠페인'을 열었으며, 경북 문경시협의회는 29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실시했다.



▲ 경북 문경시협의회





▲ 강원 횡성군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는 1월 5일 횡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저소득 장애인 난방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는 11일 옥천면 소재 '기쁨의 집'을 찾아 신년 새배를 한 후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 서울 금천구협의회는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우 가정,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 서울 금천구협의회



민주평통 전남 광양시협의회는 광양시와 함께 자매 도시인 경남 하동군을 방문해, 화재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는 화개장터 피해상인의 재건과 복구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미국 오렌지 샌디에고협의회는 1월 15일 신년하례식을 겸한 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김현명 LA 총영사는 축사에서 "오렌지 샌디에고 자문위원들은 통일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며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뛰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례식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활발한 활동한 자문위원들에게 평통 의장 표창(대통령), LA 총영사 표창, 미주 부의장 표창, 오렌지 샌디에고협의회 공로 표창장 등을 수여했으며, 김현명 LA 총영사가 '통일강연'을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협의회는 1월 23일 광저우한국학교발전기금 전달식과 함께 광동성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도서기증식을 실시했다. 광저우한국학교발전기금은 광저우한국학교 신교사 확보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저우 한국학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모금액은 광저우협의회 총인원의 90%에 해당하는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단 1주일만에 모금액 화제가 됐다.



미국 시카고협의회는 12월 20일 '2014 송년 자문위원 워크숍'을 열고 북한 인권과 한반도 역사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북한인권전문가 수잔 솔티 박사와 조슈아 스탠튼 인권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북한 인권의 실태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가 한반도 역사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미국로스앤젤레스 협의회는 12월 20일 한인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통일 리더십 캠프'를 열고 남북 식문화체험, 통일 강의, 역사 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캠프에는 탈북 학생이 참가해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밀쌈, 찹쌀순대, 입쌀만두 등 북한의 먹거리들을 시식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한편, 리더십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최측이 준비한 '통일 골든벨'이었다. 대회 결과, 주니어 평등 총회장을 맡고 있는 라시에라고교 이연진양이 1등을 차지했으며, 2등 이정운, 3등은 우회원(새라 우) 양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 백두통일봉사대는 국기외국어학교 봉사대와 함께 12월 20일 '백두산조선족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대는 어르신들을 부축해 산보를 시켜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토론토협의회는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와 함께 북한인권포럼과 토크쇼를 개최했다. 1월 28일 열린 북한인권포럼에서는 장진성 탈북작가가 증언을 했으며, 연아 마틴 상원위원을 비롯한 주류 정치인들은 주류사회와 한인동포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31일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 북한인권'을 주제로 열린 토크쇼에서는 장진성 작가와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참석해 증언했다. 또한 조 다니엘 연방의원과 피터 반 룬 연방 보수당 원내대표가 참여해 북한의 인권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좋다, 그래서 좋다

충남 아산

새 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 차일피일 미룬 채 집 안에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을 정리해 본다. 정리 기준은 단순하다.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쓸모의 여부에 의해 물건을 구분하다 책장 높은 곳 또는 침대 아래 깊숙한 곳에서 볼썽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과 마주하게 된다.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내려앉은 그 물건들은 그리 중요한 것도 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촌스러운 열쇠고리, 관광지의 지도가 새겨진 손수건, 학창시절 즐겨들던 음악 테이프나 좋아하던 연예인의 사진들 또는 빛바랜 사진 몇 장. 하나 '필요'하지도 그리 '쓸모'있지도 않지만 이번에도 그 물건들은 무사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버림을 미학이라고 말하는 시대, 한편에선 '추억'이 유행이다. 어쩌면 우린 아직 그 '무언가'를 버리고 싶지 않거나, 혹은 버릴 수 없는 걸지도 모른다. 설혹 그것이 이제는 그리 대단치 않거나, 하나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더듬어 충남 아산으로 향했다.

이 땅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자(死者)의 맹세, '현충사'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나란히 몸을 누인 진청색 기와를 따라 소담이 쌓여있던 눈송이가 녹아내린다. 처마 안쪽에 서서 바라보자면, 영락없이 비오는 날의 풍경이다. 그 몇 방울 물기를 피하겠단 요령을 부리다 발길을 멈췄다. 그것 좀 맞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 것조차 즐거워 깔깔거리며 웃었던 날도 있었는데 말이다. 평일의 한낮임에도 현충사 주변은 제법 소란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고,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으로 왔었을 법한 중년부부는 그 시절을 추억 하느라 바빠 보였다.



▲ 현충사 초입에 있는 충의문

우리나라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인이자,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손꼽는 명장 충무공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딱 100년 뒤인 숙종 32년, 장군의 넋과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 바로 현충사다. 현충사란 편액 역시 숙종 임금이 친히 내린 것이다. 하지만 현충사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충무공의 사당이란 것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항물 하나 피워 올리지 못했다가, 결국 후손들의 재정약화로 은행 경매로 넘어갈 뻔한 이곳을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새로 단장했다. 그리고 해방 후 사당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현충사로 자리하게 됐다.



▲ 현충사 전경

핍박과 설움의 세월 그리고 막상 해방은 했지만 삶이 막막해, 서로 다른 목소리로 우왕좌왕해야 했던 그 시대 속 현충사는 국민의 희망을 한 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일 것이다. 사자(死者)를 위한 공간. 하지만 장군의 기개를 닮았다 하여 곳곳에 심어진 사철 푸르른 소나무 아래를 거닐다보면, 그 어느 곳보다 생기(生氣)가 넘친다.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본전으로 들어서면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함께 일생을 기록한 십경도가 있으며, 유물관에는 충무공의 일기인 '난중일기'와 '서간첩'을 비롯해 친필 검명이 새겨진 장검 두 자루, 각종 유품과 무기, 거북선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공이 결혼 후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생활했던 옛집 터와 활터 등도 복원되어 있어 거닐기 좋다.





▲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 있는 거북선 모형(상), 이순신장군 옛집터(하) ▲ 이충무공 영정

바람이 불고, 햇살이 내려앉다, '돌담길'

추억이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어가 있다. 바로 향수(노스탤지어)다. 향수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 시절,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운 추억이 됐다.

켜켜이 쌓아올려진 돌맹이 중에는 같은 모양새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그 자리가 제 것 인양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잡은 돌들이 길을 따라 담을 이룬다. 돌담이라고는 하지만 요령껏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면 마당 안의 정경이 그대로 보일만큼의 나지막함. 그저 사람이 다니는 좁은 길과 집을 구분 짓기 위한 역할이 전부일 것 같은 돌담을 따라 걷다보니 싸리나무로 만든 대문이 보인다. 짚을 엮어 올린 지붕이나 일일이 쌓아올렸을 돌담, 싸리나무를 꺾어 얼기설기 엮은 대문까지. 어느 것 하나 집 주인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없었을 텐데도 영 허술해 보여, 괜한 참견을 하게 된다.



▲ 외암민속마을은 길을 따라 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그 시절이라고 남의 물건을 탐하던 이가 없었을 것도 아닌데 애써 들어가자면 못 들어 갈 것도 없을 만큼 틈이 많다.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요즘 집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 하지만 그 틈새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들고 낮을 것이란 생각이 미치자, 걱정이 부질없어 진다.

그리고 보니, 이 오래된 마을의 계절은 유독 선명하게 보인다. 야트막한 비탈길을 따라 눈이나 얼음이 녹은 물이 흐르고, 그렇게 흐르기 시작한 물은 겨울 냉기에 메말랐던 농토를 적신다. 8km에 이르는 돌담 사이, 사이에 터를 잡은 물이끼며, 담쟁이 넝쿨도 조금씩 생기를 띄고, 담장 너머 자리한 목련, 앵두나무, 감나무, 산수유 나무 등의 가지마다 언뜻 푸른빛이 맴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덧 새 계절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 '외암민속마을'

아산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쯤 떨어진 설화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한 외암민속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은 조선 선조 때부터 예안 이 씨 집안이 정착해 집성촌을 이룬 곳이다. 성리학의 대학자인 외암 이간 선생을 배출해 흔히 외암마을로 불리는데, 참판덕과 건재고택, 외암정사 등 문화재급 고택은 물론 충청지방 고유의 거주문화를 엿볼 수 있는 초가와 정원 등도 이 마을의 자랑이다. 특히 이곳의 매력은 아직 사람이 거주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은 보존이나 관광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과는 또 다른 생기가 넘친다. 매 끼니때가 되면 골목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나무 장작 냄새가 폴폴 풍기고, 밭에는 한 해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100여 년이 훌쩍 넘었을 고택들을 마주하는데도 하나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정경마냥 친숙하기까지 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달라졌다면 아마 바람이 지나는 그 작은 틈바구니조차 메우지 못해 안달 난 우리네 마음 정도가 아닐까.



▲ 외암민속마을은 충청지방의 고유 거주문화를 엿볼 수 있는 초가와 정원 등이 있다.



▲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재현해 놓은 시설물들

정성이 쌓고, 세월이 지켜온 기도, '공세리성당'

그 유명한 공세리성당은 평범한 시골마을 옆, 언덕마루에 서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힌다는 곳. 수 없이 많은 영화와 방송에 출연해, 그 이름만큼은 웬만한 유명인사보다 더 유명하다는 성당은 사실 상상만큼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계절 속 묵묵히 자리를 지탱해 온 350여 년 수령의 고목들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 성당의 붉은 외관을 보고 있자면, 그 옛날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쏟았을 정성과 기원에 감탄하게 된다.

종교를 떠나, 먼 길 찾아 온 이를 반겨주는 성당은 실내 역시 특별한 미사가 없는 한 문을 열어둔다. 다만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성지 중 한 곳인 만큼 실내에서는 경숙하는 것이 기본 예의이며, 성당 본관 외에도 전시실이나 박물관 등도 둘러볼 만하다.

떠나기 전 짐작했듯 아산은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던 도심은 평소 잊고 지냈던 추억의 물건들처럼 조금 빛바래고, 간혹 세월의 흔적이 뽀얗게 내려앉아 있기도 했다. 그래도 좋았다. 아니 그래서 좋았다. 그저 걷고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것도 있다.



◀▲ 공세리성당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설날 평양사람들의 만찬, 만둣국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에 남한에서는 떡국과 만둣국을 함께 요리해 먹지만 평양에서는 떡국보다는 만둣국을 먹는다. 평양만두는 잘 익은 김치우거지, 숙주나물, 두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주재료를 넣고 어른 손바닥 크기로 만두를 빚는다. 그리고 양지로 우려낸 육수를 이용해 만둣국을 끓여먹는 것이 일반적인 평양의 설음식이다.

◆ 요리재료 ◆

요리재료 : 양지머리 300g, 왕 만두피 20장, 다진돼지고기 200g, 두부1/2모, 김장김치300g, 양파 1/2개, 숙주 100g, 대파 1대, 마늘 5쪽, 통후추 약간, 다진마늘 3큰술, 다진파 3큰술, 간장 3큰술, 참기름 2스푼, 소금, 후추 약간

다진돼지고기 양념: 간장 1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소금, 후추



◆ 요리방법 ◆



1 양지머리는 냄비에 마늘, 대파, 통후추를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1시간가량 삶아준다. 다진 돼지고기는 양념을 해서 볶아둔다.



2 두부는 면보에 싸서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어 준비한다.



3 숙주는 끓는 물에 데친 후 물기를 꼭 짜 송송 썰어 준비한다.



4 양파는 잘게 다지고, 부추는 송송 썰어준비한다. 김치는 속을 털어내고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 후 다진다.



5 불에 볶은 돼지고기와 두부, 숙주, 부추, 김치, 양파를 넣고 다진파 1큰술과 다진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소금을 약간 넣고 버무려 만두속을 만든다.



6 만두피에 속을 올리고 반으로 접은 다음 양쪽 끝을 붙여 만두를 빚는다.



7 삶아진 양지머리는 건져서 잘게 찢은 후 다진 마늘, 다진파, 고춧가루, 후추 간장을 넣고 무친다.



8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 후 지단을 부쳐 잘게 잘라놓는다.



9 1의 육수를 체에 한 번 걸러낸 후 냄비에 옮겨 담아 끓인다. 육수가 끓으면 만두를 넣고 소금 간을 한 후 만두가 밑에서 올라오면 불을 끈다.



10 만두국을 그릇에 옮겨 담고 무친 소고기와 계란지단 고명을 얹어서 상에 낸다.

요리연구가 나유신

아픈 추억을 간직한 평양만두국

평양의 설음식이 만두국인 이유는 북한의 아픈 현실이 담겨있다. 북한에서는 쌀이나 밀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떡국을 만들어 먹기 힘들었고, 적은 반죽으로 만들되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로 속을 채워 크고 투박하게 만든 만두를 육수에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평양만두국은 국물에서 우리나라는 맛이 좋아 만두를 숟가락으로 터린 뒤 국물과 함께 떠먹는 맛이 일품이다. 맛이 구수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시원한 맛을 위해 파를 살짝 올리고, 고춧가루로 버무린 양지고기 고명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 북한이탈주민을 볼 때면 더욱 더 간절해져요.

글_ 전향미

인천 논현동은 제가 결혼하고 자리 잡은 새 터입니다.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이 곳, 저 곳 살펴보다보니 북한 이탈주민 정착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 논현동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동네였습니다. 나랑은 큰 상관이 없으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등록한 헬스장에 북한이탈주민 이신 분이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호기심이 일기도 하고, 워낙 인상이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오가다가 마주 칠 일이 생기면 눈인사를 주고받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후 씻고 나서 로션을 바르려는데,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라 밖으로 그냥 나가면 피부가 무척 당길 것 같아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먼저 다가와 자기 로션을 쓰라고 내미셨지요. 나처럼 큰 딸이 자기도 있다고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 하지만이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을 보니 무척 안타까웠어요. 늘 밝은 표정으로 다니시기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상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분을 볼 때면 마음 한 쪽이 무거워 집니다. 누군가에게 통일은 무척이나 멀고 관심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통일만큼 시급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마음, 한 시라도 빨리 자식을 만나고 싶은 그 급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질 정도입니다. 한 가족이 그저 행복하게 함께 하는 일. 한 민족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 일. 통일이 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크로드의 찬란한 미래

글_ 고규황



최근 MBC에서 방영된 「러시아한인, 카레이스키 150년만의 귀환」을 보았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내던져졌던 고려인들이 통한의 역사를 거슬러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남북을 건너는 15,000km 자동차 횡단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만 배웠던 연해주 강제이주. 실제로 이주 3세대가 조상의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 가슴 아픈 역사, 뼈아픈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 위로는 북한이 있어 섬나라와 다름이 없는 지형입니다. 최근 나진항에서 뱃길이 개척되어 새로운 창을 열었다는 대대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뱃길 개척도 이리 떠들썩한 뉴스인데, 통일 후에 열차길이 열린다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호재일까요!

최근 독일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일을 다 보고나서도 일정이 남아 주변국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라 간 열차가 잘 되어 있어 주변국인 오스트리아에 다녀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유레일패스로 유럽연합국을 함께 여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매년 많은 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길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통일 후 열차가 북을 통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만 있다면 옛 실크로드가 다시 한 번 개척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통일 대박'의 시대가 어서 오길. 기대해 봅니다.



도라산 역,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

글_ 이미경

6학년 사회 수업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 설명하다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져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했다. 요즘 아이들에게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인지 한참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 “통일의 의미와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는 질문에 막연히 좋은 일, 나쁜 일 등 단답형의 답변만 나왔다. 나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연결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어 유럽여행 시간이 40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지 곧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왔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서울과 천안까지 이어진 수도권철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 그제야 이해가 되는지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내친김에 걸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DMZ(비무장지대)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민간인통제구역이라고 해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서류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이들도 북한 근처에 간다고 하니깐 조금 긴장하는 듯 보였다. 시청각실에서 전쟁에 관한 동영상을 본 뒤 드디어 도라산 전망대 제3망굴로 들어서게 됐다. 어디선가 물속 북한군이 나타날 것 같아 어른도 겁을 먹을 법한 분위기 였지만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의지한 채 씩씩하게 관람을 마쳤다. 망굴 관람 후에는 도라산 출입국사무소 옆에 도라산역에도 방문했다. 새로 지어진 역사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손때나 방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를 타면 고작 5만 원 정도 나오는 거리라고 한다. 옛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평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견고한 빗장이 걸려있다. 도라산 역은 남쪽의 마지막 역인 동시에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기도 하다. 언젠가 이 도라산 역을 거쳐 유럽까지 시베리아 대륙철도가 이어지는 그날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

분단 70주년, 행복한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 방법을 많은 이들과
공유해주세요.

통일과 관련된
평소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자유롭게 서술



응모기간 2015. 02.13 ~ 2015.03.03

발표예정일 3월 셋째주


응모방법 A4용지 0.5~1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서술 후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3만 원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파일첨부
응모 



통일 사다리타기 퀴즈

다음 3가지의 통일 관련 보기 중 맞는 문장을 골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주세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적힌 번호를 체크하고 응모해주세요.



'살갑다'라는 말은
북한에서 '마음씨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살갑다'라는 말은
북한에서 '물건이
다루기에 알맞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살갑다'라는 말은
북한에서 '살이 찌서
무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1

2

3

응모기간 2015. 02.13 ~ 2015.03.03

발표예정일 3월 셋째주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박스에 적혀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당첨자수 3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통일 덕담 한마디'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ongga@hanmail.net	메모리
2	**rean7500@naver.com	통일대박
3	**amja678@naver.com	명랑소녀
4	**bbu2v@naver.com	가요미
5	**dnjs5617@naver.com	그날을위해



'웹진 즐겨찾기 인증샷'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x0228@naver.com	김지혁
2	**lee94l@naver.com	이민주
3	**ngwy1216@gmail.com	홍지현
4	**rnice@naver.com	최서희
5	**oijiwon23@naver.com	최지원
6	**nin63@gmail.com	김선인
7	**yplus3@nate.com	조세현
8	**unzo@naver.com	김정민
9	**uknia@naver.com	김나드
10	**bheart@naver.com	임근원

11	**kapoo@naver.com	신경훈
12	**repandu22@naver.com	이상미
13	**aru2@naver.com	박지수
14	**dition7942@hanmail.net	홍정은
15	**9805@empal.com	이민영
16	**617s@naver.com	이유진
17	**dmsdla@hanmail.net	임우은
18	**oonbill33@nate.com	김재훈
19	**n0558@naver.com	이은혜
20	**hehheh0@gmail.com	박인숙



'운수대통 금은별' 이벤트

[호두파운드]

번호	이메일주소	아이디
1	**rchivist55@naver.com	눈을감자
2	**hak0715@nate.com	통일이좋아
3	**yeongk@gojin.com	새해복많이

[스타벅스 카페라떼]

번호	이메일주소	아이디
1	**l2mom@hanmail.net	스패로우
2	**a0037@nate.com	바람꽃
3	**op63@hanmail.net	길만
4	**nwjddk@hanmail.net	차칸
5	**eamer509@naver.com	잠순이77
6	**y0811@naver.com	최정윤
7	**lfare-me@hanmail.net	깨알공주
8	**rnice@naver.com	파란사랑
9	**1982ko@naver.com	고고고
10	**ngg@email.com	통일로
11	**e215@naver.com	유래션
12	**rahkellybom@gmail.com	딸기우유
13	**gieyang@nate.com	양현주
14	**atns1103@naver.com	썸이네

15	**ub9734@naver.com	오드리햅번
16	**home@naver.com	옵스큐라
17	**ne097@naver.com	빌리브란트
18	**ylove82@naver.com	예원예진맘
19	**gwn@naver.com	플라베어
20	**s4902@hanmail.net	이쁜맘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ff2009@hanmail.net	010 - **** - 0097
2	**heel7272@hanmail.net	010 - **** - 1733
3	**s545@naver.com	010 - **** - 7702
4	**mpue1@hanmail.net	010 - **** - 3661
5	**87kjh@naver.com	010 - **** - 5180
6	**porter@hanmail.net	010 - **** - 1778
7	**tistlyj@hanmail.net	010 - **** - 5467
8	**e6956@hanmail.net	010 - **** - 6161
9	**vehm84@naver.com	010 - **** - 7091
10	**1982ko@naver.com	010 - **** - 9805
11	**kwon@nate.com	010 - **** - 4814
12	**6491@naver.com	010 - **** - 7195
13	**e215@naver.com	010 - **** - 0915
14	**ereyetg@naver.com	010 - **** - 8473
15	**hwamail@hanmail.net	010 - **** - 8964
16	**h7133@naver.com	010 - **** - 6681
17	**y9921@naver.com	010 - **** - 6691
18	**070136@naver.com	010 - **** - 4948
19	**rhaps00@hanmail.net	010 - **** - 3995
20	**dgidskan@naver.com	010 - **** - 0502
21	**ylove82@naver.com	010 - **** - 2799

22	**hak0715@nate.com	010 - **** - 0715
23	**yeongk@gojin.com	010 - **** - 3216
24	**rinzip@hanmail.net	018 - *** - 5001
25	**dnjs5617@naver.com	010 - **** - 5617
26	**s4902@hanmail.net	010 - **** - 4902
27	**amj26@naver.com	010 - **** - 6913
28	**ng-jin-@hanmail.net	010 - **** - 6913
29	**yboy1126@hanmail.net	010 - **** - 9807
30	**nhan79@gmail.com	010 - **** - 9904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